



이종호 "골이다" 27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4강 울산 현대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에서 전남 이종호가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부리그 전남 드래곤즈의 '유쾌한 반란'

FA컵 준결승 이종호·장순혁 연속골... 울산 현대 2-1로 제압  
11월 24일 광양서 대구와 결승전 ... 14년 만에 우승컵 도전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1 '우승후보' 울산현대를 꺾고 14년 만에 FA컵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은 지난 27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준결승에서 울산을 2-1로 제압했다.

8강전에서 K리그1 포항스틸러스를 1-0으로 꺾고 4강행을 확정했던 전남은 울산까지 넘어가면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다. 전남은 2007년 대회에서 FA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남은 대구FC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결승에서 맞붙는다. 대구는 강원FC와의 준결승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행을 확정했다. 지난 시즌 '고향팀'으로 돌아온 이종호가 '옛팀'을 울렸다. 2017년 울산 유니폼을 입고 FA컵 우승에 기여했던 이종호가 전남 '주장' 완장을 차고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 2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현욱이 공을 올렸고, 이종호가 뛰어올라 머리로 울산 골대를 갈랐다.

리드를 잡은 전남은 K리그2 최소 실점팀(35경기·30실점)답게 '잔물 수비'로 울산을 봉쇄했다. 그리고 후반 4분 만에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만들었다. 울산 신형민이 페널티지역에서 드리블 미스를 했고, 달려든 전남 발로터리를 피하려다가 장순혁 앞으로 공을 보냈다. 장순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울산 골키퍼 조현우를 뚫으면서 2-0을 만들었다. 전남은 후반 33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키커로 나선 울산 바코에게 골을 내

줬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14년 만에의 우승 여정을 이어가게 됐다. 결승전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전은 11월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다. 2차전은 대구의 안방인 DGB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다. 일자는 추후 결정된다. 한편 FA컵 결승을 이룬 전남은 31일 오후 3시 안산그리너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021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토트넘, 번리 잡고 카라바오컵 8강 진출

손흥민 후반에 교체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번리를 제압하고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에 올랐다. 손흥민은 후반 중반 교체 출전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토트넘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1-2022시즌 리그컵 16강전에서 후반 23분 터진 루카스 모라의 결승골을 앞세워 번리에 1-0으로 이겼다. 정규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2연패를 한 토트넘은 공식전 3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8강 대전 추첨은 30일 열린 예정이다. 손흥민은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24분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못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4골 2도움(정규리그 4골 1도움·UECL 1도움)을 기록 중이다.

토트넘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지 못해 슈팅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다. 전반 3분 조바니 로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아 해리 케인이 골 지역 왼쪽에서 날린 슈팅은 골대 오른쪽으로 많이 빔나갔다.

전반 43분에는 로셀소가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케인이 시저스킥으로 마무리했지만, 슈팅은 골대 위로 솟구쳤다. 토트넘은 전반 23분 만에 첫 교체 카드를 썼다. 브라이언 힐이 상대 선수와 충돌한 뒤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루카스 모라와 교체됐다.

하프타임 뒤에도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자 누누 산투 토트넘 감독은 후반 21분 스테번 베르흐베



28일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 토트넘 홋스퍼 대 번리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앞·29)과 루카스 모라가 결승 골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 올리버 스킵을 빼고 손흥민과 탕기 은돔벨레를 투입하는 변화를 줬다. 그 직후 모라가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뽑아냈다. 후반 23분 에메르송이 오른쪽에서 넘긴 코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모라가 문전으로 쇄도하며 머리로 내려찍듯이 시도한 슈팅은 한 번 바운스된 뒤 골대 왼쪽으로 향했다.

한편,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모라에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8점의 평점을 줬다. 0-0이던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은 손흥민은 교체 선수로는 무난한 평점인 6.1점을, 풀타임을 소화한 케인은 6.9점을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앞두고

### 흔들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고의 충돌 의혹 심석희

지속적인 연락·문자메시지에  
최민정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28일 고의 충돌 의혹을 받는 심석희(서울시청)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민정의 매니저인 김민정(서울시청)은 "최민정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 이후 심석희로부터 지속적인 전화 연락 시도와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민정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도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정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대표팀에서 제외된 심석희는 그동안 꾸준히 사과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정은 사과 시도 자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라고 여기고 있다.

한때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던 '쌍두마차' 최

민정과 심석희의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다.

심석희는 최근 대표팀 전직 코치인 A씨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고의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심석희는 A씨에게 여자 1,000m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누앙스의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심석희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충돌해 페널티 판정을 받았다.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심석희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통해 "올림픽 결승에서 일부러 넘어뜨리거나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민정 측은 "심석희와 A코치 사이에서 오간 대화와 똑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고,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는 대화가 이어졌다"며 "이는 심석희와 A코치가 의도적으로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논란이 이어지자 조사위원회를 꾸려 고의충돌 의혹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현재 대표팀에서 제외됐으며 최민정은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다져 조기 귀국했다. /연합뉴스